

꿈이자라는뜰

시작, 2009년 가을(~ 2021년 봄, 꿈이자라는뜰의 12년)

학교를 졸업한 우리동네 발달장애청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특수교사의 자괴감 열심히 가르쳤지만, 백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능성 바탕 농사 다양하고 생생한, 사회적이고 전인적인 자극과 경험

농촌 비교적 넉넉한 인심, 안전한 울타리

장애와 농업의 연결 교육(성장), 치유(조화), 직업(자립)

예상했던 어려움

장애 느리고 더딘 배움과 생산의 속도

초중고 12년이라는 긴 시간 농장, 마을이라는 익숙한 공간과 관계

예상보다 한참 더 느리고 더디고, 다양하구나

기대했던 해법

예상과 다른 일들

꼭 농사를 고집할 것은 아니구나 ... 지시따르기가 잘되는 숙련된 농업노동자가 목표는 아니지

농사는 직업 자립 기술 뿐만 아니라 삶을 위한 기술, 관계와 정서, 회복탄력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농장이 아닌 다른 마을일터와 연결하기

학교의 불안정성

학교 예산과 정책의 변화 학교밖, 마을안에 거점만들기 꿈이자라는뜰

특수교사의 근무지 이동 마을교사, 주민교사라는 버팀목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을 시절

전문성

농업이 낯설은 특수교사 구성원간의 협력, 팀워크

돌봄농부(마을교사)의 성장

장애와 교육이 낯설은 농부

현재진행형 임상연구 기록농사를 지어보자

장애에 대한 이해 수용과 변화를 구분하기

디딤돌

돌봄농장 퍼머컬처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돌봄농부 비폭력대화 구성원이 함께 만든 약속, 꿈이자라는뜰의 질문과 부탁

확장, 연대

장애와 농업 다리놓기 장애와 농업을 연결하는 사람들(온/오프라인)

그러나 여전히 무자격, 무면허, 비인증, 비인가 사회적농업? 치유농업사?

경제적자립

농업의 낮은 수익성

적게 벌더라도 아껴쓰고 공평하게 나누기 낮은 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활동비가 밀리다니

농장(터전)의 안정과 효율성 7년을 가꾼 농장을 돌려주고, 빌린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장애인의 낮은 생산성

외부지원 가까운 이웃들의 지원과 마을 단체들과의 협력 마을이 주는 기본소득

언젠가 정부와 기업의 지원도 꿈들의 속도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의 인식

당사자와 부모

이왕이면 바리스타, 행정사무직이 좋아요 학교일자리, 사회적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

농사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 급여수준보다 동료관계와 직장문화가 더 중요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고마워요 후원, 방문, 관심 장애와 농업은 소수중에 소수 고군분투

사회적인 관심과 새로운 정책흐름(사회적농업) 어쩌다 교육농장, 돌봄농장

같이 일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차마 같이 일하자고 말하기가 어려워 다른 삶을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

장애, 농사, 교육을 잘 몰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만큼만 같이 해보자

자연조건

장마, 무더위, 강추위

방향의 전환

장애인의 꿈이자라는뜰에서 모든 구성원의 꿈이 함께 자라는뜰로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는 농장에서 장애와 비장애가 만나는 농장으로

농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을 잇는 농장 + 농장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일하고, 놀고, 먹고, 쉬 수 있는 모두의 농장

작성

꿈이자라는뜰 보루 2018.8.25 2019.11.15 수정 2021.05.01 보완